논어 8편 태백 15장 · 원문·풀이

子曰：「師摯之始，關雎之亂，洋洋乎，盈耳哉！」

독음 · 자왈 사지지시 관저지란 양양호 영이재

쉬운 풀이(요약) · 악사 지가 연주를 시작하고 관저의 끝부분에 이르자 소리가 귀에 가득 찼다고 칭찬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 / 師 스승 사 사 / 摯 잡을 지 지

之 갈 지 / 始 비로소 시 시 / 關 빗장 관 관 / 雎 저구 저 저

亂 어지러울 란 란 / 洋 큰 바다 양 양 / 乎 어조사 호 / 盈 가득할 영 영

耳 귀 이 이 / 哉 비로소 재 재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